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 분류현황 분석 및 제언*

Analysis and Suggestion of the Classification Status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여 지 숙 (Ji-suk Yeo)**

〈 목 차 〉

I. 서론	III.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
II. 문학자료 분류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IV. 결론

요약: 이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가지는 이중언어 및 한국어 이외의 현지 언어로 발간된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 문학류의 언어에 의한 분류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국내 대학 및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기호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국내 도서관들은 원작품의 언어에 분류하거나 또는 작가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DC의 문학류 분류규정에는 원작품의 언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작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들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을 언어에 따라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을 원작품의 언어가 아니라 작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이 가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분류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KDC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과 한국문학을 포괄하는 '한민족 문학'을 810에 분류할 수 있는 별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별법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도서관을 위한 시도적 제안이며, 이 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의 조사 및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문학자료분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자료 분류, 이중언어 문학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diaspora literature with the bilingual feature, which was published in a local language other than Korean, focusing on literature classification status in domestic library's material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domestic universities and public libraries that owned the diaspora literature materials were classifying the original work by the languages or focusing on the author's work. Nowadays, the Literature classification codes of KDC have on the language of the original work but no code on the author. Nevertheless, domestic libraries were classifying diaspora literature works by the author, not by the language of the original work, so that the same author's works were gathered in one place. This study proposes an option to classify "Korean national literature" that covers Korean diaspora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into 810 of KDC to resolve the confusion in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However, this option is a trial proposal for libraries with special needs for Korean diaspora literature classification, and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will be necessary to apply this option.

KEYWORDS: Literature Classification, Korean Diaspora Literature Classification, Bilingual Literature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987).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wuhaha@chol.com / ISNI 0000 0004 6485 0514)

• 논문접수: 2022년 5월 27일 • 최초심사: 2022년 6월 2일 • 게재확정: 2022년 6월 9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285-304,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285>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디아스포라(diaspora) 문학이란 자신의 기원인 민족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바깥'에 거주하는 이산인(離散人)의 문학을 일컫는 말이다(정은경, 2007, 11). 언어를 매개로 작품활동을 하는 문학의 경우 창작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바깥'에 거주하는 이산인의 문학인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들은 한국어를 비롯한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언어적인 문제는 문학적 관점에서 이 작품들의 한국 문학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윤송아, 2003, 168; 장윤수, 2011, 22; 채근병, 2003, 18)의 대상이 되고 있다.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및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에서 문학작품은 창작된 언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언어에 따른 문학의 분류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다. 자료분류에서 문학류를 언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은 다른 주류에서는 필요로 하는 주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원하지만, 문학에서는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요구한다는 단순한 근거에 의한 것이다(Sayers, 1954, 251). 그러나 이 언어에 따른 문학 자료의 분류를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 이외의 다른 분류방식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다.

도서관의 분류가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곳에 분류되어야 한다(Sayers, 1954, 177). 문학 자료의 분류를 창작언어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 의한 문학의 분류 외에도 다른 분류 방식을 선호하는 이용자들도 있고, 언어에 따라 분류할 경우 그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본질로부터 분리되는 자료도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이 이러한 자료일 것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해외에서 이산의 삶을 사는 한인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굳이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디아스포라 개념에 내재된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소외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정은귀, 2010, 468).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에는 이산으로 인한 재외한인들의 삶이 주요 주제 중 하나이지만, 그들은 한국어 또는 거주 지역의 현지어, 두 언어로 동시에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이러한 특성과 창작언어의 문제가 문학적인 측면과 도서관 자료의 분류적 측면에서 분류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이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 가지는 특이사항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도서관의 자료분류가 문학 자료를 언어에

따라 분류한다는 측면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가지는 언어적인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고 있는 도서관의 분류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는 최근 민족, 국가, 인종이라는 확고한 경계가 약화되면서 새삼 문제시되고 있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정은경, 2007, 1). 1900년대 초반부터 해외에 사는 한인들에 의해 창작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작품 중 국내에 소개된 작품들은 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면서 분류되었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창작된 언어로 분류하는 도서관의 자료 분류규정을 이용자가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인지한다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이산인으로서의 특성과 이들의 창작언어의 다중성은 도서관 이용자 및 분류 담당 사서에게 다른 문학작품에 비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조사결과 분석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 문학류의 분류에 대한 연구 중 언어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DC와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등 도서관의 자료분류들이 언어에 따라 문학 자료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Amaeshi(1985)는 LCC와 DDC의 아프리카 문학 분류체계에 대해서 논하면서, 문학에서 언어는 중요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카와는 다른 현재 아프리카 문학의 분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와 유럽어와 아프리카어로 창작된 아프리카 문학을 분류하기 위한 보조표(tables)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특히 Amaeshi는 디아스포라 문학과 이중언어 저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학을 언어로 분류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cey(1989)는 DDC에서 문학을 언어별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 문학을 파편화하고 다른 국가의 문학 일부가 “모국어” 국가의 문학에 종속되는 그룹을 만들 수 있으므로 문학 분류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Olson(2001)은 동일성을 사용하여 자료를 모아 다른 것을 구분하는 분류에서, 이 동일성이 서양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떤 특성이 어떤 순서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DDC 문학류의 열거순서에서 언어가 첫 번째 패시(facet)으로 사용되는 것은 민족 문학의 다국어적 특성이 아니라 지리학적 동일성을 이용하여 특히 서양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지리와 언어를 동시에 특권화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Kua(2004)는 DDC의 400 언어류 및 800 문학류를 살펴보면, 문학을 언어로 분류하는 DDC가 한 국가의 문학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학을 분산시킨다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Kua는 DDC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연구로 정해성(2003)은 문학류 분류를 위한 조합식 분류체계를 제안하였으나, 이 분류체계에서도 언어 패킷으로 먼저 분류한 뒤 형식, 작가, 시대 등의 순으로 조합하였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원작품에서 사용된 언어에 분류된다. 노지현(2010)은 이용자 중심적 분류 또는 독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로 장르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히 문학 자료를 '원작의 언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자료의 체계적 배열을 위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만,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정규와 오동근(2014)은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함께 있는 어린이 자료와 출생국가와 활동 국가가 다른 월경(越境)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KDC를 사용하는 국내 도서관의 분류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분류를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 문학 자료의 분류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어에 따라 문학자료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문학 자료의 분류가 디아스포라 문학과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자의 문학작품이 분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적으며, 특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II. 문학자료 분류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분류는 서로 유사한 것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것을 분리한다. 사서는 독자가 책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정보자료의 배열을 염두에 두고 분류를 하며,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주제로 배열된다. 그러나 형식이 더 중요한 순수문학과 같은 형식류(form classes)는 이러한 주제에 의한 분류에서 예외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저자의 알파벳순 배열 내에서 문학 형식순, 또는 창작된 언어로 먼저 분류한 다음 형식과 시대순, 형식에 관계 없이 언어 아래 연대순으로 배열된다(Sayers, 1954, 2-4, 182).

문학은 이처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류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DC와 KDC 역시 문학류는 언어, 문학 형식, 시대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이용자는 언어를 먼저 고려한 뒤 그 언어에 따라 문학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언어로 발간되는 번역서와 같은 문학작품도 처음 발표 당시의 창작언어에 함께 분류되므로, 이용자는 물론 자료분류를 하는 도서관에서도 언어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이 언어는 도서관의 자료분류와 문학사의 분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학사에서 문학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누가 쓴 작품인가 하는 문제인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어떤 언어로 쓴 작품인가 하는 것인 속문주의(屬文主義), 창작 지역에 따른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있다

(김중희, 2016, 10; 조규익, 2009, 141; 홍기삼, 1995, 511).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인이 한국어로 창작한 작품에 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이 창작한 문학작품은 한국문학의 기본적인 조건과 어긋나 있으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국문학 포함 여부는 창작언어, 출판 국가, 작가의 국적 또는 민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구재진, 2017, 46; 홍기삼, 1995, 524). 그러나 재외동포 수가 73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표 1〉 참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현재 그 설득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김중희, 2016, 10).

특히 디아스포라 문학 중 재외한인이 한국어가 아닌 현지어로 창작된 경우 어느 문학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는 문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문학의 입장에서 재미 한인들이 영어로 창작한 작품은 유이민 문학(*immigrant literature*)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한글로 창작된 작품은 미국 문학의 일부로라도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채근병, 2003, 18). 그리고 재외한인 작가의 작품 분류에 대한 논의에서 이들의 문학작품을 도서관에서 검색하면 모두 외국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현지어로 쓰인 재외한인 작가의 작품 분류를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장운수, 2011, 22)을 보면, 도서관의 자료분류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도 문학류의 분류, 특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에 대한 논의가 있다. 언어로 문학 자료를 분류하는 DDC의 문학류 분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분류 패킷의 배열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학을 분산시킨다는 것이며, 이러한 DDC의 분류는 한 국가의 문학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Kua, 2004, 258). 이러한 현상은 서양 또는 비서양이든 상관없이 문학의 언어 측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국어 사회의 문학이 분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Amaeshi, 1985, 47), 언어 우선적인 분류체계에서 이중언어 저자와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는 작지만 항상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Kua, 2004, 259).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문학에서 이러한 문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디아스포라 문학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범주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지역분포와 인구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 지역과 인구분포에 따른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국, 일본, 구소련지역 국가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범주는 지역 및 인구분포에서 나타난 주요 지역으로 범주 나누어서 논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들에서 재미 한인 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 재일 조선인 문학, 구소련지역 고려인문학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중희, 2003; 정은귀, 2010, 468; 홍기삼, 1995). 이러한 네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작가 수와 작품 수 또한 재외동포의 수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1〉 재외동포 현황 및 지역별 디아스포라 문학 현황

지역	구분 수	재외동포*		디아스포라 문학**			
		인구수(명)	백분율(%)	작가수(명)***		작품수	
				소설 등****	시	소설 등****	시
동북아시아	일 본	818,865	11.18	55	7	141	16
	중 국	2,350,422	32.09	85	35	149	82
	소 계	6,169,287	43.27	140	42	290	98
북 미	미 국	2,633,777	35.96	83	11	63	31
	캐나다	237,364	3.24				
	소 계	2,871,141	39.20	83	11	63	31
유 럽	구소련	397,670	5.42	75	19	54	50
	기 타	279,486	3.82	·	·	·	·
	소 계	677,156	9.24	75	19	54	50
기타		607,559	8.29	·	·	·	·
총 계		7,325,143	100.00	298	72	407	179

*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20년 12월 기준)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구재진 외, 2020; 김환기 외, 2020; 박덕규 외, 2020; 우정권 외, 2020)의 본문에 나타난 작가 및 작품을 산출, 작가명만 제시되고 작품이 없는 작가도 작가수 산출에 포함함

*** 소설과 시를 동시에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는 복수 집계함

****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 지역의 디아스포라 문학의 창작언어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이민 세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미 한인 문학에서 1.5세대, 2세대, 3세대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영어로 하고 있으며, 이민 1세대는 주로 문인단체를 조직하여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소연, 2003, 41-42). 중국 조선족 문학은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창작되며, 극히 적은 단 몇 편의 작품만이 특별한 수요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이혜영, 2011, 234). 구소련지역 한인들의 문학은 한글 신문의 독자투고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한글 작품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현지에서조차 1950년대와 60년대에 각 1권, 1970년대 2권, 1980년대 7권, 1990년대 1권뿐이며, 국제 정치적 환경 등의 이유로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이정선, 2003, 495-496; 홍기삼, 1995, 566). 각 지역별 디아스포라 문학의 창작언어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창작되는 지역은 미국을 포함한 미주 지역과 일본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는 작가(해당 지역의 한인 문학의 시작 및 대표성, 국내에 알려진 것으로 평가받거나 현지 문학상 수상(후보) 등의 이력을 가지는 작가) 중 이중언어 또는 현지어로 창작한 작가를 살펴보면(〈표 2〉 참조) 이러한 현상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표 2> 이중언어 또는 현지어 창작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주요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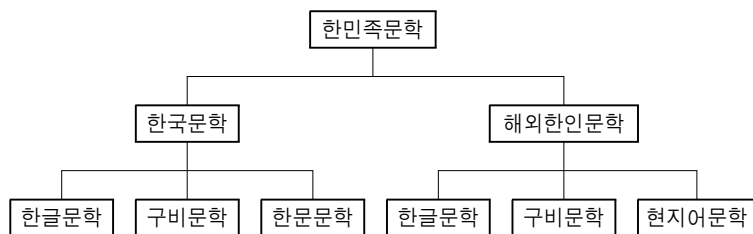
	작가	문학사적 의의	주요 작품
미국	강용홀	• 영문 문학의 시초	초당(The Grass Roof)(1931), 동양선비 서양에 가시다(East goes west)(1937) 등
	김용익	• 한국어와 영어로 글쓰기를 계속한 거의 유일한 작가 • 영문 문학에서 단편으로 일가를 이룬 작가 • 이중언어(한글, 영어) 작가	꽃신(Wedding Shoes)(1956): 처녀작, 김용익을 알린 작품 행복의 계절(The Happy Days)(1960): 1960년도 미국도서관협회 & 뉴욕타임 우수도서 선정 푸른 씨앗(Blue in the Seed): 1966년 서독 우수도서 선정 데미크 교과서 게재, 1967년 오스트리아 정부 청소년 명예상 수상 변천(From Below the Bridge), 막걸리(The Willage Wine): 외국인인 쓴 우수 단편 선정 해녀(The Sea Girl): 미국 중고등학교 영문학 교과서 게재
	김은국	• 영문 문학에서 장편으로 일가를 이룬 작가 • 1969년 한국작가로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	순교자(The Martyred)(1964), 심판자(The Innocent), 빼앗긴 이름(Lost Name) 등
	캐시 송 (Cathy Song)	• 영어로 시를 쓰는 소수 작가 중 국내 번역 소개된 작가 • 미국 내 인지도 있는 작가	사진신부(Picture Bride)(1983): 예일대학 '젊은 신인상(1983)', '전미 도서 비평 씨클상', '프레테릭 보크 시인상', '엘리엇 케이드 문학상'(1988), '셸리 기념상'(1993), '하와이 문학상' 등 수상
일본	장혁주	• 재일동포문학의 본격적 시작 • 재일 조선인 문학의 대표적인 두 표상 중 1인	펼치하는 사람(奮ひ起つ者)(1933) 등
	김사랑	• 재일동포문학의 본격적 시작 • 이중언어(한글, 일본어) 작가 • 재일 조선인 문학의 대표적인 두 표상 중 1인	빛 속에(光の中に)(1940): 아쿠타가와(鮎川)상 후보작
	김달수	• 재일 동포 문학의 첫 번째 성과 • 해방 전과 해방 후 재일 1세대 작가의 맥을 잇는 작가	현해탄(玄海灘)(1954), 태백산맥(太白山脈)(1969) 등
	이은직	• 아쿠타가와상 후보	흐름(ながれ)(1939) 등
	김석범	• 아쿠타가와상 후보	까마귀의 죽음(鴉の死)(1967) 등
	이희성	•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최초의 재일조선인 작가	다듬이질 하는 여인(砥をうつ女)(1973): 아쿠타가와상 수상 백년동안의 나그네(百年のつ旅人たち)(1994): 노마(野間)문학상 수상, 올해의 소설 베스트 10 선정
	이양지	• 재일 3세대 작가의 선두주자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1982): 아쿠타가와상 후보 유희(由熙)(1988): 아쿠타가와상 수상
	유미리	• 재일 조선인 세 번째 아쿠타가와상 수상	물고기의 축제(漁の祭)(1993): 키시다쿠니오(岸田國士) 회곡상 수상 풀하우스(フルハウス), 롱나물(もやし):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가족시네마(家族シホマ)(1997): 아쿠타가와상 수상
구소련	아나톨리 김 (Anatolii Kim)	• 고려인 대표 작가	다람쥐(1984), 리스, 아버지의 숲 등
호주	김동호	• 호주문학상 수상	내이름은 티안(My name is Tian)(1969) 차이나맨(Chinaman)(1975)
독일	이미륵	• 독일 신문 서평 1백 건 이상 • 독일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이상 수록 • 1952년 독일어로 발간된 서적 중 가장 훌륭한 독어 서적선정	암륙강은 흐른다(Der Yalu fließt)(1964) 등

* 金鐘會, 2004, 266-269, 271; 김종희, 2014, 117-118; 이소연, 2003, 41-67; 임영인, 김태영, 2012, 392-503; 채근명, 2003, 17-40; 홍기삼, 1995, 545-572, 575-578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 2〉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은 재외한인의 수도 가장 많으며, 현지어 및 이중언어로 문학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가장 많고, 두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현지의 문학상 및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상황이다.

학계와 문학계에서는 한국문학을 논의하면서 끊임없이 언어와 민족을 화두로 삼았다(송현호, 2021, 38). 속문주의에 치중한 한국문학의 정의 문제, 냉전 체제에 기반한 미묘한 적대 감정 등은 폐쇄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한국문학의 범주를 설정해왔다(윤송아, 2003, 168). 그러나 재외한인의 문학 작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2000년대를 전후하여 문학계에서는 속문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한국문학’에서 그 범위를 확대한 ‘한민족문학’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한민족문학은 민족개념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국가들의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 북한 문학, 재외한인 문학을 한민족의 삶과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문학이 리는 더 큰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송현호, 2021, 21; 조규익, 2009, 141). 재외한인의 문학이 창작된 언어가 한국어이든 외국어이든 그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문문학을 수용하듯, 우리 문학의 특수한 영역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홍기삼, 1995, 524-525). 한민족문학의 개념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민족문학 개념도(조규익, 2009, 142)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문학 자료에서 언어는 문학적인 측면과 도서관의 자료분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의해 창작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한국어와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창작되는데, 이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는 문학적인 측면과 도서관의 자료 분류적인 측면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코리안 현지어 및 이중언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국내 도서관의 분류현황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Ⅲ.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

1.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작품 중 한국어가 아닌 언어 현지어 또는 이중언어로 발표한 후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된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문학작품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서 선정한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 KORIS-NET)을 검색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문학작품 선정 과정 및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사를 개괄한 자료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작가들을 선정한 후 <표 2> 참조, 현지어 및 이중언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를 선정하였다. 이중언어 또는 현지어로 창작한 작가를 선정한 이유는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 문학자료의 분류를 창작 언어로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둘째, 선정된 작가는 RISS와 KOLIS-NET에서 검색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한 것으로 검색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소장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그 도서관의 MARC 데이터에서 청구기호에 있는 분류기호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분류기호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표에 대한 정보는 대학도서관의 분류표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공공도서관의 분류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연감에 수록되는 통계데이터의 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특히 DDC를 사용하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한국문학의 분류기호를 자국우위(local emphasis) 등을 위하여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학도서관의 재전개가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2.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자료의 분류현황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분류표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도서관 중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는 대부분 DDC와 KDC이다. 대체로 한 도서관이 단일한 하나의 분류표를 동양서 및 서양서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서양서에 대하여 별도의 분류표를 사용하는 복수 분류표 사용 도서관들도 있다.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분류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대학도서관 분류표 사용 현황

분류표	도서관	복수분류표		단일분류표	
		국내서	국외서	도서관수	비율(%)
대학 도서관*	KDC	78	2	173	46.8
	DDC	4	73	160	43.2
	기타	2	9	7	9.0
	합계	84(18.5%)		370	81.5
공공 도서관**	KDC	5	.	988	99.1
	DDC	.	4	2	0.2
	기타	.	1	2	0.2
	합계	5(0.5%)		992	99.5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2021년 기준)

** 도서관연감 통계의 원데이터(2020년 기준), 무응답 175개 도서관(공공(일반) 165개, 공공(어린이) 10개) 제외

대학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서 및 국외서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84개 도서관이 있으며, 국내서는 KDC(78개, 92.9%)를 국외서는 DDC(73개 86.9%)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서 및 국외서에 대하여 동일한 단일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370개 도서관이 있으며, 이 중 KDC(173개, 46.8%)와 DDC(160개, 43.2%)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333개 도서관(90.0%)으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KDC와 DDC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서 및 국외서에 대하여 동일한 단일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992개 도서관이 있으며, 이 중 988개(99.5%) 도서관이 KDC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서 및 국외서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5개 도서관으로, 이들 도서관도 국내서의 분류에는 KDC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분류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의 90% 이상이, 국내 공공도서관의 99% 이상이 KDC와 DDC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조사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분류기호는 KDC와 DDC의 분류기호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작가로는 〈표 2〉의 작가 중 재미작가로 한글과 영어로 작품활동을 한 김용익과 재일 작가로 한글과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한 김사랑, 그리고 아쿠타가와상을 최초로 수상한 이회성, 그리고 구소련지역 작가인 아니톨리김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작가 및 작품은 〈표 4〉와 같으며, 각 작가의 작품 중 조사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먼저 RISS와 KOLIS-NET의 검색을 통해 국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작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인지의 여부와 다수의 도서관(최소 30개 이상의 도서관이 소장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내 도서관이 소장한 작품이 복수의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경우, 소장 도서관이 가장 많은 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4〉 조사 대상 작가 및 작품

	작가	조사 작품	특징
미국	김용익	꽃신: 김용익 소설집 1 / 김용익. 통영: 남해의봄날, 2018(본문 한국어 영어 혼합)	처녀작
		푸른 씨앗 / 김용익 저. 통영: 남해의봄날, 2018.	한글 발표
		Blue in the seed and other stories / by Kim Yong Ik : illustrated by Joo Yong Bok. Seoul: Si-sa-yong-o-sa, c1990	영어 발표
일본	김사랑	빛속으로: 김사랑 작품집 / 김사랑 지음 ; 오근영 옮김. 서울: 소담출판사, 2001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일본어 발표
		노마만리 : 김사랑 작품집 / 김사랑 지음. 서울: 동광출판사, 1989	한글 발표
	이회성	다듬이질 하는 여인 / 이회성 저 ; 이호철 역. 서울: 정음사, 1972	아쿠타가와상 수상
		백년동안의 나그네 / 이회성 저 ; 김석희 옮김. 서울: 프레스빌, 1995.	노미문학상 수상
구소련	아나톨리 김	다람쥐 / 아나톨리 김 지음 ; 권철근 옮김. 서울: 문덕사, 1993.	고려인 대표작가

조사대상 작품들을 소장한 도서관의 분류기호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동양관계 항목의 재진개 대상 중 한국문학을 재진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나, 모든 도서관의 재진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문학류를 재진개하는 경우 811에 한국문학을, 812에 중국문학, 813에 일본문학을 진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한국소설은 811.3이 되게 된다. 따라서 811.3에 한국소설을, 813.3에 일본소설을 분류하는 경우 이를 재진개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김용익의 작품인 ‘꽃신’과 ‘푸른 씨앗’은 한국문학에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일작가인 김사랑과 이회성의 경우 일본어로 발표한 자료의 한국어 번역판인데 도서관에 따라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으로 각기 분류하고 있었다. 특히 이회성의 경우 일본문학과 한국문학에 분류한 도서관의 수가 거의 비슷하였다. 아나톨리 김의 경우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러시아 문학에 분류하였으나,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한국문학과 러시아 문학에 분산되어 분류되어 있었다.

김용익의 ‘푸른씨앗’은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발표되었으며, 한글로 발표된 작품은 한국문학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로 발표된 작품을 소장한 도서관은 한국문학에 분류하거나, 언어 중 영어(DDC 428, KDC 747)에 분류하고 있었다. 김사랑의 ‘빛속으로’는 일본어로 발표한 작품이며, ‘노마만리’는 한국어로 발표한 작품이다. ‘빛속으로’는 일본어로 발표한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나, DDC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한국문학에,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었다. ‘노마만리’의 경우 김사랑이 중국에 망명하여 일본에 대항하였던 내용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이 한국문학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빛속으로’와 ‘노마만리’를 모두 소장한 도서관 11개관 중 3곳의 도서관은 모두 KDC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빛속으로’는 일본문학(833.6)에, ‘노마만리’는 한국문학(813.6)에 분류하고 있었다. 이회성의 두 작품은 모두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KDC와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 모두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에 비슷하게 나누어 분류하고 있었다. 아나톨리김의 작품 ‘다람쥐’는 러시아어로 창작된 작품을 한국

어로 번역한 것인데, 대부분의 도서관이 러시아문학에 분류하고 있었으나 한국문학에 분류한 도서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문학작품을 창작언어로 분류하는 규정을 채택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조사 대상 작품 분류 현황

	작가	조사작품	분류기호	
			DDC*(소장기관수)	KDC(소장기관수)
미국	김용익	꽃신	한국문학: 811.3(8); 811.32(3); 811.34(1); 811.36(5); 811.361(1); 811.37(2); 811.377(1); 811.38(1); 813.6(1)**; 813.7(1)**	한국문학: 813.6(12); 813.7(3)
		푸른 씨앗	한국문학: 811.3(4); 811.32(3); 811.36(2); 811.3608(1); 811.37(2)	한국문학: 813.6(3); 813.7(2)
		Blue in the seed and other stories	한국문학: 813.5(1); 813.73***; 895.734(2)***; 영어: 428(1)***	한국문학: 813.8(1) 영어: 747(1)
일본	김사량	빛속으로	한국문학: 811.3(6); 811.32(2); 811.34(1); 811.36(5); 811.362(1); 811.37(1); 813.3608**(1) 일본문학: 895.63(1)***; 895.73(1)***	한국문학: 813.6(24); 813.608(1); 일본문학: 813.62(1); 833.6(26)
		노마만리	한국문학: 811.3(3); 811.32(2); 811.32082(1); 811.34(1); 811.35(1); 811.36(2); 811.37(1); 811.6(1); 813.61(1)**; 895.708(1)*** 중국문학: 895.1081(1)***	한국문학: 810.81(1); 813(1); 813.6(10); 813.6071(1)
	이희성	다듬이질 하는 여인	한국문학: 811.3(2); 811.32(2) 일본문학: 813.3(6); 813.32(1); 813.36(3); 813.37(2); 895.63(2)***	한국문학: 813(1); 813.6(5) 일본문학: 833(1); 833.6(5)
		백년동안의 나그네	한국문학: 811.3(7); 811.32(4); 811.3(6); 811.36(1); 895.73(1)*** 일본문학: 813.3(7); 813.32(1); 813.36(3); 813.37(2); 895.63(1)***; 895.653(2)***; 895.636(1)***	한국문학: 813.6(12) 일본문학: 833.6(11)
구소련	아나톨리 김	다랍쥐	러시아문학: 891.7(2)***; 891.73(10)***; 891.734(1)***; 891.7344(4)***	한국문학: 813.6(3) 러시아문학: 892.8(19); 892.83(7)

* DDC 사용 도서관이 811.3에 한국소설을, 813.3에 일본소설을 분류한 경우 동양관계항목을 재전개 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외의 분류기호로 확인이 된 것은 **로 표시하였음.
*** DDC 표준판의 기호

현지어와 이중언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에 대한 국내 도서관의 분류 현황의 조사는 특히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동양관계항목의 재전개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개별 연구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작가 및 작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시도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이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창작언어에 대한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국내 문학계에서도 문학적 범주와 관련한 논의들이 꾸준히

진행된 상태이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식민지를 겪은 나라의 경우 언어로 문학을 분류한다는 것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보다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우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문학류의 분류는 작가의 출생지나 거주지가 아니라 창작한 언어에 분류하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현대 작가의 경우, 국적에 분류한다(Merrill, 1939, 128). KDC는 문학작품을 원칙적으로 원작품에 사용된 국어(810-899)에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자국어 문학 아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전집은 저자가 많이 쓴 국어의 문학 아래나 최후의 국적이 있었던 국어의 문학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258). DDC 역시 문학류의 분류는 언어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Dewey, 2011, 769). KDC를 보면,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창작된 경우와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작품을 모아 놓은 전집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한 작가가 여러 개의 언어로 창작한 개별 작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KDC는 여러 언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일 경우, 작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들 작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KDC의 규정은 (1) '문학작품은 원칙적으로 원작품에 사용된 국어에 분류한다'와 (2)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자국어 문학 아래 분류한다'이다. 특히 (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도서관은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용익은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도미한 후 미국에서 작품활동을 영어와 한국어로 하였으며, 김사량도 고등학교부터 일본에서 공부한 후 작품활동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한 작가이다. 이회성은 사할린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한 작가이며, 아나톨리김의 경우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어로 작품활동을 한 작가이다. 앞서 살펴본 KDC의 규정에서 이들에게 적용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국어와 외국어를 어떤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김용익과 김사량은 교포 1세, 이회성과 아나톨리 김의 경우 교포 2세, 3세이다. 문학계의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에서 재외교포의 세대에 따라 그 범위를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서 교포 2세, 3세까지 모두 디아스포라 작가로 포함시켜 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기준과도 일치한다.¹⁾

1)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정한 재외동포 기준 중 하나가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의 자격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이다. 두 법에서는 하나의 기준에만 해당하여도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표 5〉에서 이 네 명의 작가의 작품을 소장한 국내 도서관 중 K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살펴보면, 이 도서관들은 이 두 규정 중 원칙인 (1)의 규정을 적용한 도서관들이 더 많았지만, 일부 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작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김사량의 '빛속으로'와 이회성의 두 작품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지만 비슷한 수의 도서관이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에 분류하였으며, 아나톨리김의 '다람쥐'는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대부분의 도서관이 러시아문학에 분류하고 있었다. 이것은 (2)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경우 '자국어'를 어떤 것으로 정하는 것이냐도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에 대해 개별 도서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도서관들이 하나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자국어'와 관련한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의 규정이 KDC에서 '원칙'으로 제시된 규정이지만 어느 규정을 적용하든지 한 도서관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각 도서관이 따르고 있는 규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에 대하여 도서관들이 이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상황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이 도서관에서 분류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학작품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디아스포라 문학작품 중 현지어와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창작하는 작가의 작품인 경우, 분류자의 견해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경우 '자국어'를 어떤 언어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에 따라 분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 중 현지어 및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의 분류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의 분류현황을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작품들에 대하여 원작품의 언어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작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김용익의 '꽃신'과 '푸른 씨앗'은 영어로 발표되어 한국어로 번역된 판이었지만, 대다수의 도서관이 한국문학에 분류하고 있었다. 김사량의 작품 '빛속으로'와 이회성의 두 작품도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이었으나,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아나톨리김의 작품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러시아문학에 분류하고 있었고, 이중언어 작가인 김사량이 한글로 발표한 '노마만리'는 중국문학에 분류한 1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문학에 분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본다면, 도서관들이 작가에 따라 그리고 언어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DC와 DDC에서 문학류의 분류는 언어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에 대한 분류현황이 이와 같이 조사된 결과를

보면, 도서관은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와 그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를 위한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을 분류할 때 먼저 사용하는 분류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류표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 분류규정에 대하여 숙지한 후, 분류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디아스포라 작가 중 이중언어 작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 대상인 현지어 및 이중언어로 발표되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우, 작가와 작품별 언어를 모두 고려해서 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원작의 언어에 따라 분류할 경우 이중언어 작가들의 작품은 동일저자의 작품이 창작된 언어에 따라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작가를 중심으로 분류를 한 도서관들은 아마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류자가 디아스포라 문학작품 및 작가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에 대한 이해도 충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작가의 작품을 한곳에 모아 분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가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KDC에서 문학작품의 분류는 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품의 언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KDC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을 이와 같이 분류를 할 때 다른 종류의 문학작품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자료이다. 동일한 작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보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고자 하는 도서관에게 문학작품의 분류를 창작언어에 따라 분류하는 규정은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의 분류를 다른 작품의 분류보다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문학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별법의 사용을 제안해 본다.

810 한국문학(韓國文學) Korean literature

별법: 도서관에 따라 한민족문학(한국문학과 해외한인문학, 재외한인문학, 해외동포문학,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 등을 포함)은 810에 분류할 수도 있다.

예: Blue in the seed / Kim Yong Ik 813

한민족문학은 문학계에서도 디아스포라 문학을 포함하는 해외한인문학과 한국문학을 포괄하는 최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KDC는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로 인식되는 분류표로, 문학계의 이러한 의견과 도서관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의 분류에서 겪는 혼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별법을 제시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별법을 채택할 경우 언어에 상관 없이

한민족문학을 한 곳에 모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KDC의 810 한국문학은 KDC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장서수가 많은 류로, 이 별법을 사용할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도서관에서 한국문학 장서의 양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별법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가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디아스포라 문학은 국적 및 문화적 정체성의 다중성만큼이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쉽게 포착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정은경, 2007, 18).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이러한 특징이 문학계에서만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 문학이 가지는 특징인 이산인으로서 겪어온 삶의 경험이 작품의 주요 주제 또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의 작가 역시 재외한인이라는 특성을 분류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별법으로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 별법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성으로 인한 분류의 혼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별법은 동일한 주제의 자료 분류방법을 도서관 관종과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분류표상에 제시한 것으로(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16), 이 연구에서 제시한 별법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와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도서관에게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특수한 요구보다는 문학 자체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별법의 사용으로 인한 분류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주제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은 각 지역 및 사례를 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가 및 작품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디아스포라 문학과 관련된 추가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구재진 (2017). 민족-국가의 사이 혹은 너머에 대한 상상: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트랜스내셔널 상상. 도시인문학연구, 9(2), 43-67.
- 구재진, 김형규, 김호웅, 윤의섭, 이미림 (2020). 중국 조선족 문학: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 3.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金鐘會 (2004). 在外 同胞文學의 어제·오늘·내일: 在美國·在日本·在中國 同胞文學의 범주와 실상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2(4), 261-283.
- 김중희 (2014). 한민족 문학사의 통시적 연구와 기술의 방향성. 외국문학연구, 56, 103-122.
- 김중희 (2016). 해외 한글문학, 그 확산과 치유의 길. 한국문예창작, 15(2), 179-205.
- 김중희 편 (2003).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제1권. 서울: 국학자료원.
- 김환기, 유숙자, 윤대석, 이승진 (2020). 제일 한인문학.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 2.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노지현 (2010).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51-170.
- 박덕규, 남기택, 정은경, 정은귀 (2020). 미주 한인문학.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 1.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송현호 (2021). 한민족문학과 한국어문학의 개념 그리고 민족의 관계양상. 춘원연구학보, 22, 21-45.
- 우정권, 전성희, 홍용희, 홍용호 (2020) 고려인문학.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 4.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윤송아 (2003). 제일 조선인문학 개관. 김중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제1권. 서울: 국학자료원, 167-189.
- 이소연 (2003). 재미 한인문학 개관 II: 해방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김중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제1권. 서울: 국학자료원, 41-67.
- 이정규, 오동근 (2014). 어린이자료와 월경(越境) 작가 작품의 통일적 분류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123-128.
- 이정선 (2003). 구소련 지역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시문학 양상. 김중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제1권. 서울: 국학자료원, 495-540.
- 이혜영 (2011). 중국 조선족 문학과 중국어 창작: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과 번역 발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4, 231-256.
- 임영언, 김태영 (2012). 제일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의 작품 경향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 53, 387-404.

- 장윤수 (2011).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 연구. *재외한인연구*, 25, 7-40.
- 정은경 (2007). *디아스포라문학*. 서울: 이룸.
- 정인귀 (2010). 미국의 한국계 시인들, 디아스포라, 귀한의 방식: 마종기, 캐시 송, 명미 김의 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18), 467-502.
- 정해성 (2003).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73-296.
- 조규익 (2009). 해외 한인문학의 존재와 당위: '한민족문학' 범주의 설정을 제안하며. *국어국문학*, 152, 125-150.
- 채근병 (2003). 재미 한인문학 개관 I: 해방 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제1권. 서울: 국학자료원, 17-40.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제3권: 해설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기삼 (1995). 재외 한국인 문학 개관 유종호 외 공저. *한국 현대 문학 50년*. 서울: 민음사, 507-585.
- Ameashi, B. (1985). African literature as a new main clas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17(1), 39-50.
-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Vol. 3. Dublin, Ohio: OCLC.
- Kua, E. (2004). Non-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cheme. *Libri*, 54, 256-265.
- Merrill, W. S. (1939). *Code for Classification: Principles Governing the Consistent Placing of Books in a System of Classification (2n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Olson, H. A. (2001). Sameness and difference a cultural foundation of classific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5(3), 115-122.
- Pacey, P. (1989). The classification of literature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9(4), 101-107.
- Sayers, W. C. Berwick (1954).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Theoret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with Readings, Exercises and Examination Papers*, (9th ed.). London: Grafton.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e, KeunByung (2003). Review of Korean literature in the U.S. I: focusing on the literature

- before liberation. In Kim, Jonghio. *The Literature of Korean Culture*. Vol. 1. Seoul: Kookhak, 17-40.
- Cho, Kyu-Ick (2009). Sein and sollen in overseas Korean literatur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52, 125-150.
- Chung, Eun-Gwi (2010). Korean American poets, diaspora, returning: focusing on the poems of Ma, Jong-gi, Cathy Song, and Myung Mi Kim. *Comparative Korean Studies*, 1(18), 467-502.
- Chung, Hae-Sung (2003). A study on the proposed faceted scheme for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2), 273-296.
- Committee of Classific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6th ed.). Vol. 3.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Hong, Ki-Sam (1995). Review of foreign Korean literature. In Yu Jongho et. al. *Modern Korean Literature for 50 years*. Seoul: Minumsa, 507-585.
- Jang, Yoon-Soo (2011). A study on the identity of Korean diasporic literature. *Studies of Koreans Abroad*, 25, 7-40.
- Jung, Eunkyong (2007). *Diaspora Literatures*. Seoul: Erum.
- Kim, Hwangi, YU, SOOK JA, Yun, Dae-Seok, & Lee, Seungjin (2020). Korean Literature in Japan. *Current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Foreign Countries*, 2. Seoul: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Kim, Jonghio (2003). *The Literature of Korean Culture*. Vol. 1. Seoul: Kookhak.
- Kim, Jonghio (2004). New area and direction of foreign Korean literature.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32(4), 261-283.
- Kim, Jonghio (2014). The diachronic study and direction of writing in literature history of Korean nationality. *Foreign Literature Studies*, 56, 103-122.
- Kim, Jonghio (2016). Literature abroad in Korean, the spread and healing. *The Journal of Literary Creative Writing*, 15(2), 179-205.
- Koo, Jaejin (2017). Imagination on in-between or beyond of nation: transnational aspects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Studies in Urban Humanities*, 9(2), 43-67.
- Koo, Jaejin, KIM, Hyeonggyu, JIN, HUXONG, Youn, Eui-Seoup, & Lee, Mi-rim (2020). Korean Literature in China. *Current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Foreign Countries*, 3. Seoul: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Lee, Hai-Ying (2011). Literature and Chinese writing of Chinese Korean nationality: based

- on Li Genquan's Chinese writing and translation works.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34, 231-256.
- Lee, Jeonggyu & Oh, Dong-Geun (2014).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unifie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materials and the work of border crossing literature. *KLISS 2014 Summer Conference*, 123-128.
- Lee, Jung Sun (2003). Formation of Soviet-Korean literature and aspects of the poetic literature in former Soviet Union. In Kim, Jonghio. *The Literature of Korean Culture*. Vol. 1. Seoul: Kookhak, 495-540.
- Lee, SoYeon (2003). Review of Korean literature in the U.S. I: focusing on the literature after liberation. In Kim, Jonghio. *The Literature of Korean Culture*. Vol. 1. Seoul: Kookhak, 41-67.
- Park, Dukkyu, Nam, Gi-taek, Jung, Eun-kyoung, & CHUNG, Eun-Gwi (2020). *Korean Literature in the Americas, Current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Foreign Countries*, 1. Seoul: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Rho, Jee-Hyun (2010). The meanings of genre classificat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the case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51-170.
- Song, Hyunho (2021). The concept of Korean national literature and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nation. *Chunwon Research Journal*, 22, 21-45.
- Woo, Jeonggueon, Chun, Seonghee, Hong, Yong-hee, & Hong, Woong Ho (2020). *Korean Literature in the Former Soviet Union, Current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Foreign Countries*, 4. Seoul: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Yim, Youngeon & Kim, Tae Young (2012). The study on the diaspora literature tendency of Korean Japanese: centered on the literatures since 1950s.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Daehan*, 53, 387-404.
- Yoon, Song Ah (2003). Review of literature and Zainichi Korean literature. In Kim, Jonghio. *The Literature of Korean Culture*. Vol. 1. Seoul: Kookhak, 167-189.